

"종조 가르침 새겨 佛恩에 보답" 조계종 종조 도의국사의 사상과 업적을 기리는 법석이 열렸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6월 6일 조계사 대웅전서 원로회의 의장 밀운 스님을 비롯한 원로스님들과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 집행부 스님, 재가불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계종조 도의국사 다례'를 거행했다. 이날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원로회의 의장 밀운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조사께서 원력하신 선풍진작과 화합원융이 사바에 두루 가득하여 인류의 평안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불교 안팎 반발에도 '염화미소법' 강행될까

중앙종회 제 206회 임시회 안건 살펴보니

6월 21일 개최 예정인 제206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를 앞두고 상정될 안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종회에는 종단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염화미소법'을 비롯해 종회의원의 총무원 교역직 겸직 허용 등 안건이 대거 상정될 예정이다.

그중 눈길을 끄는 것은 중앙종회 총무원장선출제도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초격)가 상정 예정인 '총무원장 선출에 관한 법'이다. 일명 '염화미소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추천인단 706명이 총무원장 후보 3명을 추천하면 갈마위원회 후보검증과 원로회의 인준을 거쳐 종정 스님이 추첨하는 제도다.

'염화미소법'에 대한 논란은 대중들의 '직선제' 여론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고 있다.

가장 먼저 대중공사 참석대중 일부는 이번 염화미소법 상정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장 직선실현을 위한 대중공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까페와 아고라 등을 통한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준비위원회 허정 스님은 6월 3일 종회에 보내는 공개편지를 통해 "대중공사의 결론을 외면하면 대중공의를 존중하는 승가의 전통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염화미소법'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일고있다. 먼저 후보자 3인 추천에 대한 부분이다. 지난 30대 총무원장 선거부터 34대까지 후보자가 3명을 넘어서는 경우는 2번에 불과했다. 이에 입후보자와 추천된 후보가 같을 경우 추천제도가 자체가 무의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후보검증을 위한 갈마위원회가 한두 명의 후보자만 검증을 통과시키는 경우에도 추천 제도가 유명무실해진다.

직선제 미반영에 대중 서명운동

추천과정 유명무실 지적도 나와

갈마위 권한 남용 문제점 여전

종회의원의 종무직 겸직 허용 여부

한글 표준의례의식안 동의도 관심

또한 10여명에 불과한 갈마위원회가 권한을 남용 할 시 현행 321명의 선거인단 간선제보다 참종권이 더 훼손된다는 단점이 있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 법응 스님은 '이상한 총무원장 선출제도는 안된다'는 글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분석하고 "총무원장 선거제도가 이상한 방향으로 개정된다면 종단발전은 고사하고 대중의 분노만 살 것이다. 종교라 해도 사회가 공감하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장선출제도특위 위원장 초격 스님은 "이번 안건은 종회에서 종단 안팎의 관심사인 총무원장 선출제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자는 것"이라며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장 함결 스님도 "직선제를 선호하는 종회의원들도 있다. 오히려 직선제 입법청원과 같이 여론을 종회의원에게 전하는 움직임이 없어 아쉽다"며 "제도 개선까지는 종헌·종법 개정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논의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월된 안건도 논란거리

이와 함께 제206회 임시회에 상정 예정인 종헌 개정안과 대각회특별교구법 제정안, 지방종정법 개정안 또한 논란의 대상이다. 이들 안건은 205회 임시회에서 격론 끝에 이월됐다.

먼저 종헌 개정안은 중앙종회의원의 총무원 부실장 겸직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5회 임시회에서는 '인사난을 해소하기 위해 겸직을 허용해야 한다'는 종헌종법특위의 발의 취지 설명에도 종회에서도 입장차이가 확연했다.

교구본사 주지의 3임 제한을 골자로 한 지방종정법 개정안도 교구별 특성으로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과 권력독점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임시회에는 조계종 의례위가 요청한 우리말 삼귀의와 사홍서원, 행선축원, 신중예경, 조석종송 등 5건에 대한 종단 표준의례의식안 최종본 동의안건이 다뤄진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조계종 의례는 반야심경, 칠정례, 천수경에 이어 삼귀의와 사홍서원까지 모두 한글화될 전망이다.

또 동국대 감사 제정 스님의 임기가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종립학교관리위원회에서 추천되는 복수후보자에 대한 동의안도 다뤄진다.

한편, 당초 6월 임시종회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94년 멸빈자 특별법 상정은 사부대중위원회 활동 종료시점인 9월로 연기될 전망이다. 사부대중위원회 관계자는 "대중공사추진위원회가 94년개혁 멸빈자 사면을 하반기 주제로 잡고 있기에 위원회에서도 여론 수렴 후 차기 종회에 상정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승적업무 관리 개편 나서

6월 7일 '승적업무관리에 관한 령' 개정안 입법예고

조계종 총무원이 2013년 도입한 승적관리시스템이 개편된다. 조계종 총무원은 6월 7일 '승적업무관리에 관한 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승적업무관리에 관한령'은 승적관리 업무의 근거법령으로 법령 개정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행정시스템 개편에 의한 것이다.

이번 통합관리 시스템 정비와 법령 개정으로 중복승적 데이터가 정리되며 신상변동 사항도 데이터화 된다.

특히 입적에 관한 부분의 처리과정이 다양화된다. 그동안 입적은 사망신고에 의해서만 집계돼 행정업무에 애로점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입적 신고가 없더라도 신문기사, 검안서, 화장증명서 등 객관적 입적사실 확인 가능 시 총무부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적교구본사 주지 및 도제, 사형사제 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다양화되는 승적 증명을 위해 새롭게 도제관계확인서와 제적확인서, 결계확인서, 법계확인서, 재적본사확인서 등도 신설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승적에 대한 증명서 및 확인서는 영문 등 외국어로도 발급된다.

이밖에 재수계자에 대해 기존에는 승랍만 재기산 했던 데에서 재수계년부터 승랍을 기산해 승적번호가 변경된다.

한편, 승적업무관리에 관한 령은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선학원, 100인 대중공사 참여 거부

8일 이사회서 결의…"법인법 폐지 선행" 원론 고수

조계종 사부대중100인대중공사추진위원회가 '조계종·선학원 갈등 해결'을 주제로 한 3차 대중공사를 예고한 가운데, 선학원 측이 이에 대한 공식 불참 입장을 밝혔다.

대중공사추진위는 6월 3일 선학원 측에 공문을 통해 "8월 25일 3차 대중공사에 선학원 이사 스님 및 분원장 스님들의 참석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에 선학원은 8일 이사회를 열고 "재단과 종단과의 갈등은 종단이 재단과의 합의를 파기하고 선학원을 장악하고자 〈법인관리법〉을 제정함으로써 야기된 것"이라며 "대중공사가 상생의 입장에서 선학원 문제를 다루기를 원한다면 우리 재단이 시종일관 제안해 온 〈법인관리법〉을 폐지할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참석 요청을 정중히 거절한다"고 결의했다.

이와 함께 선학원 이사회는 7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범행단 결성을 결의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상설화해 선학원 분원장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선학원은 지난 4월 6일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전국 범행단을 발족한 데 이어 지역별 범행단 결성에 뜻을 모은 바 있다.

노덕현 기자

"태허 스님, 국난의 시기 민족 앞날 밝힌 분"

관음종, 개산조 태허 스님 평전 발행

대한불교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이 지난해 맞은 창종 50주년을 기념해 개산조 일대기를 모은 평전과 그동안 관음종에 관련해 나온 논문들을 모은 모음집을 발간했다.

관음종은 2015년 10월 7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창종 50주년 기념법회를 열고 이번 발간 자료에 대한 사료 편찬계획을 밝힌 바 있다.

평전 〈인생탈춤〉은 관음종 개산조 태허홍선 스님(1905~1979)의 일대기를 역사적 흐름에 비추어 정리한 것이다.

태허 홍선 스님은 1905년 서울 종로구 견지동에서 출생했으며, 1919년에 경성고등전문학교를 나온 후 한동안 나라를 빼앗긴 울분 속에 방황했다.

스님은 1928년부터 불교에 심취하다가, 1930년 선암사에서 조선불교 선교양종의 교정인 경운(擎雲)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이때부터 4년간 경론과 참선수행을 하면서 공부 했으나 그것으로는 미진하다는 생각에 1935년부터 소요산 백운암에 들어가 천일기도를 하였다.

1940년 서울 종로구 숭인동 낙산에 묘각사를 창건, 법화신앙의 근본도량을 마련했다. 그러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경북 상주 백화산으로 자리를 옮겨 백화암을 창건하고 6년간 수선했다. 그 후 서울로 돌아와 하루도 빠짐없이 탑골공원에 나가 일없이 그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2년여에 걸쳐 거리설법으로 장안에 삿갓도인으로 칭명되기도 했다.

이번 〈인생탈춤〉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소상히 드러난다. 이와함께 스님이 열망한 법화계 통합도 과제로 다룬다.

스님은 1957년에는 법화계통을 규합하여 일승불교현정회를 창립하고 회장에 취임했으며, 1960년에는 '생일회'를 조직하였다. 1965년 12월 8일에는 대한불교 관음종(구 불입종)을 창종했다.





창종 50주년 기념논총도 발간

홍파 스님 "근현대사 자료 될 것"

법화사상의 포교와 관음종의 포교에 힘쓰던 스님은 1979년 6월 24일 세수 74세 법랍 50세로 묘각사에서 입적했다.

이와 함께 논문모음집 〈일대사인연 반세기와 미래〉는 16명의 불교계 저명학자가 관음종의 태동 배경과 현재와 미래를 학문적으로 고찰한 논문집이다.

참여 학자로는 신규탁, 이평래, 차차석, 고영섭 등이 있으며 '창종의 배경' '종단의 이념' '보살운동의 전개' '미래를 위한 제언' 등 4가지 대주제에 따라 4명씩 나눠 집필했다.

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관음종은 지난 50여년간 한국사회의 혼란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인생탈춤'과 '일대사인연 반세기와 미래'는 구한말 대한제국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격동의 한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어 근·현대사를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16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혜인 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집

◐ 초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x.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최종성적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매
석 사 과 정	3년	10명	
박 사 과 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등

❷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❸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❹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6년 6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문 의 처

☎ 전화 : 86-25-84028478
86-13-585195431
☎ 팩스 : 86-25-84028479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 주소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논현동 2-14 2층)
■ 전화 :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 (02)511-2028
■ http://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 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혜 인

중의대 침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學大學)